1974년 4월 3일의 서울문리대 풍경

이 종 구

*이종구님은 민청학련사건 당시 서울대 사회학과 3학년이었으며, 석방 후에는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 재직하다가 동경대학교에 유학. 1991년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 해 4월의 기억

30년의 세월이 지나간 민청학련 사건은 나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의 인생 경로를 엄청나게 바꾸어 놓았다. 비상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빵잽이'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자수해서 풀려나고 74년 1학기 학점을 받은 사람들도 반체제라는 낙인이 붙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진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은 개인만이 아니라 정권과 사회체제 자체의 진로에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끼쳤다. 내가 보기에는 인혁당 인사들을 사법살인함으로써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10 · 26과 광주의 참극은 이미 74년 4월 3일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의 다른 시국 사건과 마찬가지로 민청학련 사건에도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과는 다른 내용이 많다. 물론 양심적인 역사 연구자와 피해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공식적인 사건 발표에서 왜곡된 진상들이 바로 잡혀가고 있다. 그러나 증언하는 당사자들도 사건의 공식적인 흐름에 대한 기록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추구하던 이념의 내용이나 행동에 나서게 된 정신적 동기에 대한 기록은 나중에 할 일로 보류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연구자들의 작업도 주도적 역할을 한 핵심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층의 참가자나 지지자들이 가려지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수많은 긴급조치 관련 구속자의 하나에 불과한 나는 민청학련으로 알려진 물위에 나온 멋있는 빙산을 그린 사람은 많을 것이므로 물밑에 잠긴 울퉁불퉁한 얼음 덩어리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생각하였다.

긴급조치 1호와 암울한 겨울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일어난 독재타도를 외치는 최초의 유신반대 시위는 유신체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던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각지의 대학, 교회, 사회단체에서 유신헌법을 철폐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4년 1월 8일 발포된 긴급조치 1호와 장준하, 백기완 선생의 구속, 이호철 선생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은 세상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문리대 학생운동권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두 무엇인가 큰일이 터질 것이라는 막연한 느낌은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물어보기만 할 뿐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 판국에도 담대하게 유신 철폐를 부르짖고 나선 소장 목회자들과 서울대, 연대의 의과대학생들이 집단 구속되었지만 학내 분위기는 고양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헌을 논의만 해도 징역 15년을 선고한다는 긴급조치 1호 때문에 학생운동이 위축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가 보기에 진짜 이유는 10 · 2 시위의 후유증이 컸었다.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 연행된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회나 자치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던 친구들은 육체적 ·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 학생회장과 학생운동의 지도부가 구속되거나 도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자 그대로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었다. 신문에는 아무런 기사도 나오지 않았고, 가십란이나 만평에서만 우회적으로 무슨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마비되어 있었으므로 수업 거부가 언제 끝난다는 기한도 없이 반복되어도 수사당국에서는 주동자를 찾을 수 없었다. 학과 연구실에 별안간 누가 들어와 "지금부터 동맹휴학이라고 한다"는 말을 전하면 설왕설래하다가 "운동하느라 고생하는

친구들 입장도 있고 다른 과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명분론이 대세를 이루게 마련이었다.

당시에는 필수 과목이었던 교련을 거부하면 입영해야 하는 세상이었다. 의예과였던 것으로 기억되는 데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계속하고 교련은 받는다"는 입장을 결정하자 교수들이 "군인이 와서 강의하면 전공수업도 듣겠다는 얘기냐"고 분개하였다는 일화도 있다. 캠퍼스에 학생이 없으니 시위는 고사하고 하다 못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려고 해도 말붙일 상대가 없었다.

이런 와중에 교정에서 학생 가운데 최고 연장자였던 정치학과의 제정구 선배를 만났다. 나와 비슷하게 헤매고 있던 2학년 몇 명이 당장 제 선배를 붙잡고 "형님, 얘기 좀 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매달렸다. 기대와는 달리 제선배는 "나도 골치 아프다. 형사들이 와서 안양로를 내놓으라고 난리다. 무작정 수업 거부만 하고 있는 것은 좋은 투쟁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다.

입학 정원이 20명밖에 안되는 사회학과에서는 수업거부같은 중요한 안건이 생기면 교수와 학생이 같이 회의를 하는 일이 많았다. 물론 격론이 오가다가 학생 대표는 시국에 대한 교수들의 입장을 묻게 마련이고 근엄하기로 유명했던 이해영 교수가 "너부터 자퇴해라.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할 셈이냐. 학생운동의 리더였던 선배들 중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고 야단치는 것으로 끝나게 마련이었다.

밖에서는 진보적인 젊은 지성인으로 알려진 한완상 교수의 설득 논리는 약간 독특했다. "미국 대학에서는 데모하는 옆에서 남녀가 껴안고 키스하고 뒹굴어도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다. 학생들과 같이 데모하러 가는 교수도 있지만 수업 거부하면 무조건 결석 처리하는 교수도 있다.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져라. 한국 학생들은 민주 아니면 독재라는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래도 당시까지는 대학에 공동체 문화가 남아 있었으므로 학생들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한 번은 표결을 했는데 수업거부를 계속하자는 파가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2학년이었던 나는 수업거부를 반대하는 주장을 강경하게 하다가 오히려 교수들에게 위험 인물로 찍혔다. 발언 내용 이전에 본과에서 가장 밑에 있는 후배인 2학년이 선배들한테 자기 주장을 하며 목청을 높이는 행동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열린 대의원회에 나가서도 나는 일단 수업거부를 풀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있는 국사학과의 유병용만 동조하고 엉뚱하게도 자연계 학과 대표들이 "이 판국에 너도 사람이냐"는 투로 매도하는 것이었다.

내가 학생운동에 본격적으로 끼어 들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사회학과에는 71년 위수령 사태로 학교를 떠났다가 복학한 안부근 선배가 있었다. 지금은 여론조사 전문가로 일가를 이루고 있는 안부근은 우왕좌왕하는 후배들이 한심하게 보였는지 나를 따로 불러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동맹 휴학을 하며 정세가 변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하자, 안부근이 "학교 문을 닫아두는 것은 학생운동의 정도가 아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구속학생 석방이라도 요구해 봐라. 무엇보다도 학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중심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충고를 하였다.

이런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정치학과의 박찬욱, 심리학과의 송운학, 철학과의 권오걸, 불문학과의 최권행과 혜화동 로타리에 있는 튀김집에서 만났다. 송운학이 소개한 권오걸, 최권행과는 이 자리에서 인사를 처음으로 나누었다. 그 심각한 장면에서도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윤흥길의 「장마」라는 소설에 대해 얘기하는 권오걸로부터 신선한 인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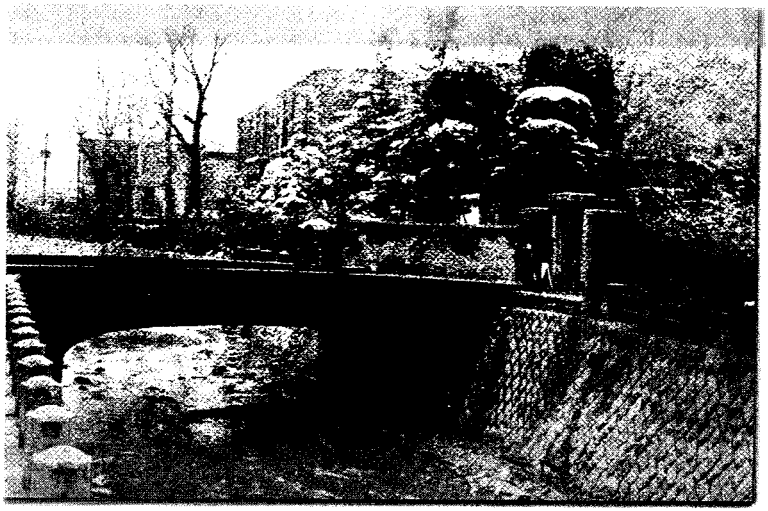
어쨌든 실천 사항으로 우선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결정하고 송운학이 문안을 기초했다. 권오걸과 최권행은 야학에서 '가리방'을 가져왔다. 나는 박찬욱이 안내하는 대로 성균관대 옆에 있는 창현교회 다락방에 가서 롤러로 등사하는 작업을 했다. 생전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어서 서투른 솜씨로 잉크를 잔뜩 손에 묻혀가며 어설프게 밀어낸 유인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젊은 전도사가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얘기를 주고받다가는 들통이 날 것을 우려해 답례도 안하고 도망치듯이 빠져 나왔다. 이 때 부딪친 박윤수 전도사는 71년에 한신대에서 제적된 행동파였고, 74년 1월에 긴급조치 1호로 구속되었다. 둘이 등사판이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박전도사가 일부러 문 앞을 지켜준 것이었다고 짐작된다.

나중에 벌어질 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조그만 에피소드였지만 우리들끼리는 기본적 신뢰가 생겼고, 실천운동에 점점 깊이 개입하게 되었다. 결국 민청학련 사건 당시에 모두 체포되었다가 박찬욱은 동대문경찰서에서 풀려나고 나머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는 교회에서 등사판을 빌려 쓴 부채 때문에 박찬욱이 권하는 대로 거절하지 못하고 대학생부 집회에 나갔다가 친절하고 부드러운 회원들에게 붙잡혀 나중에는 세례교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대학생부 담당 부장 집사는 이세중 변호사였다. 당시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해방신학을 비롯한 진보신학은 참으로 매력적이었고 대학의 수업이나 학회 활동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지적 자극을 주었다. 이 때 교회 운동권과 맺기 시작한 인연으로 나중에는 재야 연구단체의 원조격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을 창설하는 일에도 참가할 수 있었다.



서울대 문리대 앞의 소위 미라보 다리

알고 보니 창현교회에는 당시 문리대 정치학과 4학년이었던 김효순 선배가 대학생 회원들의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돌봐주고 있었다. 독일어 원서 강독 시간에 해석을 잘하던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던 김효순을 엉뚱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셈이 되었다. 김효순은 나를 보자 "잘 왔다. 이제부터 네가 신경 좀 써라"고 하며 통째로 떠맡길 기세였다.

나는 '주말에는 쉬고 기분전환이나 하려는 판에 교회까지 와서 에리히 프롬이나 마르쿠제를 읽게 되다니…'하고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당시에 이미 공개활동을 못하고 숨어 다니기 시작한 학회 조직망을 챙기는 것도 벅찬 때였다. 그러나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서울대 문리대는 한 건 터뜨리고 마냥 주저앉아 있었지만, 소식을 들은 다른 대학에서 뒤늦게나마 잇달아 시위에 나서기 시작했고, 빨갱이로 몰릴 위험이 덜한 KSCF 계통의 교회 운동권이 저돌적으로 각지에서 기도회를 열기 시작했다.

제1차 석유파동으로 경제난이 닥치고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국제 여론이 악화되어 입장이 곤란하게 된 박정권은 73년 12월 7일에 구속자를 모두 석방하고 학생 징계도 취소했다. 학내에서는 일단 판정승으로 끝났다는 안도감이 감돌고 긴장이 풀렸다.

10 · 2 시위를 주도했던 이철, 정문화, 이해찬 등은 여세를 몰아 방학 동안에 학생운동 조직을 강화하고 봄에는 본격적으로 밀어붙이자고 소집단을 만드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종강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학사징계의 여파로 입대하는 친구들이 많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으므로 갖가지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당시의 고민거리를 되살려 보면, 운동이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박정권을 퇴진시키는데 성공해도 다음에는 누가 맡는다는 것인가, 김대중이나 야당의 집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인가, 미국은 결국 박정권을 미는 것이 아닌가, 노동자, 농민, 빈민의 운동이 과연 진짜 계급운동으로 발전할 전망이 있는가,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독교 운동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었다고 기억된다.

해가 바뀌면서 서울에 남아있는 2학년들은 김효순을 중심으로 일본어 문헌을 읽는 세미나 모임을 만들었는데, 안전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 창현교회에서 만나기로 했다. 여기에 모인 친구들은 최병두, 박찬욱, 권만학, 김일, 정동영 등이었다.

나는 히라가나, 가다가나도 읽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므로 공부하는 자리에는 자주 가지 않았다. 나중에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를 받을 때 일본어를 모른다고 항변하자 수사관은 "어쨌든 김효순이 나누어 주는 종이를 본 적이 있지, 빨리 시인해!"라고 다그쳤다. 이 때문에 판결문에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주의를 김효순의 지도를 받아 학습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모임은 방학 동안 지속되었고 정동영을 간사로 호선해

신학기 교내 학생운동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기반이 되었다.

2월 말쯤 되니까 이철 등 선배들도 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 더구나 창현교회가 종로 5가의 기독교회관과 가깝다 보니 KSCF 운동하는 사람들도 조용하게 얘기할 장소로 활용해 자주 드나들었다. 이 때문에 창현교회가 민청학련 사건 공소장에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민중 지향과 신월동 야학

내가 보기에 민청학련 사건과 이전의 학생운동 사건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키워드는 '민중'이다. 민청학련 사건이 터질 무렵부터 학생운동은 민중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71년의 교련 반대 운동이 위수령 발동과 강제 입영으로 끝나고 나서는 학생운동 내부에서 개헌과 민주회복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개혁을 목표로 민중운동을 준비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었다. 당시 야학은 학생운동과 민중운동이 만나는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었다.

10 · 2 시위로 촉발된 학원사태가 진정되고 있을 때 제정구 선배가 빈민운동을 하고 있던 송정동 주민 일부가 신월동 일대로 집단 이주하게 되었다. 제정구는 빈민 청소년을 위한 야학을 하자고 후배들에게 제의하였는데, 문리대 학생들만으로는 일손이 모자랐다.

결국 김효순이 중심이 되어 교사진을 모으다 보니 결과적으로 창현교회에 드나들던 서울 시내의 여러 운동권 대학생들이 골고루 섞이게 되었다. 착실한 진짜 기독교인들인 창현교회 청년, KSCF에서 온 각 대학 기독학생회원, 문리대 운동권, 내가 활동하던 서울대의 문리대 · 법대 · 상대 연합 학회인 한국사회연구회 회원들이 교사진을 이루었다.

본래 야학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교사진 관리가 제일 중요한 일이기 마련이다. 평소에 사교성이 없다고 욕먹고 있던 내가 그래도 가장 인간관계가 넓다고 교장을 맡게 되었다. 천막교회에서 칠판 하나 걸어놓고 시작하였는데,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수없이 겪었다.

주로 대학생 교사들의 안이한 자세 때문에 속이 상했지만, 툭하면 목사가 부흥회를 한다고 수업을 중단시켰다. 학생들도 쉴 새 없이 바뀌어 수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나로서는 중산층 인텔리가 아닌 이질적인 사람들과 섞여보는 첫번째 경험이었다.

야학을 운영하는 거점도 창현교회에 있었으므로 나는 여러 학생운동 집단과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김민기가 지은 〈금관의 예수〉의 노랫말과 같이 그 어두웠던 겨울에도 움직이고 있는 운동권 학생들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별안간 일복이 터져 돌아 다니면서 나는 그 당시에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기억된다. 물론 이 야학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풍비박산이 되었다.

1974년 3월의 문리대 풍경

3월에 개학이 되면서 나는 3학년이 되었다. 표면적으로 가장 큰 학내 관심사는 학생회 구성이었다. 귀향했던 친구들도 돌아와 72학번 가운데 학생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정동영이 사회를 보며 개강 직전에 학생회 문제를 의논하는 모임을 가졌다.

그러나 아무도 학생회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더구나 71년 위수령 사태의 여파로 학칙이 개정되어 학생회장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평점 3.0 이상이 되어야 했는데, 문리대 운동권의 기풍이 학점에 집착하는 것을 천박하게 여기므로 지사들은 자격이 없었고 성적이 좋은

모범생들은 출마할 뜻이 없었다.

불과 몇 달 전에 엄청난 고생들을 하고서도 고향, 고교 동문, 각종 이념 집단이 뒤섞인 운동권은 학생회라는 조그만 권력을 놓고 내가 하자니 내키지 않고 남이 가져가는 꼴은 못 보겠다고 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

마침 국사학과의 곽성문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서자 단독후보로 선거를 치루고 학생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 때 정동영은 곽성문이 결코 자기 희생을 감수할 사람이 아니라면서 학생회장 선거에 간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학생회가 구성되는 과정을 챙긴 것은 국문학과의 김재남이었다. 선거 절차는 73년 집행부 가운데 무사했던 간부인 미생물학과 71학번의 이병조가 선관위원장을 맡아 진행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학과와 학회 대표들이 간담회를 열었는데 사회를 보던 이병조가 느닷없이 "학생과 직원을 만났더니 빨리 학생회 만들어서 데모하려고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냐고 말하더라"는 발언을 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운동과 상관없이 신년도 학생회를 구성하는 절차인데, 이러한 말은 입 밖으로 내봐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완전히 쓸데없는 소리였다. 박종현에게 이병조의 언동이 이상하다고 의논했지만 괜찮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봄에 전국적인 학생운동을 일으키려고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의 소식은 2월부터 알고 있었다. 한국사회연구회원으로 야학을 같이 하던 1년 선배인 심리학과의 박종현을 통해 이미 잠적해 있는 운동권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 정도였다.

73년 12월 7일 마지막으로 석방된 5명의 하나인 김병곤 선배도 한국사회연구회원이었다.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냐고 하는 쓸데없는 질문

은 하지도 않았지만 박종현이 전하는 소식의 상당한 부분은 김병곤의 뜻이었다고 짐작하고 있었다. 포커, 바둑, 탈춤 등 잡기에 출중하고 미팅 주선도 잘할 뿐 아니라 항상 낭만적인 연애 경험담을 흘리고 다녀 인기가 많았던 박종현은 내가 보기에 친구들에 대한 우정과 부채의식으로 사건에 끼어 들게 된 착한 사람이었다.

민청학련 사건 직전에는 한국사회연구회 모임에서도 행동 방향에 대한 논쟁이 자주 벌어졌다. 사회주의 체제를 통한 경제건설이 능률적이라거나 민중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운동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정치경제학도들에 대한 반대 토론은 으레 내 몫이었다. 내가 대학이라는 현장에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의논하자고 나서면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 사적유물론의 법칙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라고 하는 훈계가 되돌아 왔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항상 박종현이 포장마차로 데리고 가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미 인간적으로 대화해 노선 문제가 수습되기는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었다. 서울대 상대 경우회 계통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당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찬양론자들 가운데에는 무사히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마친 다음 한국에서 가장 열렬하게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논객으로 변모한 사람도 있고, 몇몇은 경제부처의 요직을 거치기도 했다.

박종현은 자수해서 풀려났지만 대학원 진학을 거절당해 교수 면전에서 원서를 찢어 버리고 회사원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한국사회연구회가 드러나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할 것이 뻔했다. 나는 문리대 밖의 일은 모른다고 무작정 부인하고 문리대 내부의 일은 웬만하면 나도 했다고 시인하는 방법으로 수사관들의 관심이 한국사회연구회로 가지 않게 노력했다.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서울구치소 9사하 4방에 수감된 직후 똥통을

버리러 나갔다가 끄트머리에 있는 먹방(징벌방)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김병곤을 발견했다. 수초 동안의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이름과 한국사회연구회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4년 2월 말로 기억되는 어느 날, 박종현이 철학과 72학번의 전홍표가 연락을 할 테니 교내 학생운동에 대해 의논해 보라고 말했다. 초면인 전홍표를 만나보니 말을 돌려 가면서 중언부언하는데 요점은 선배들의 전달 사항을 가지고 왔으니 같이 검토하자는 얘기였다. 자주 만나서 학내 상황을 논의하기로 했다.

곧 대전에서 정치학과의 강구철이 올라왔으므로 셋이서 문리대 안팎의 학생운동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고 판단하기 위해 자주 만나게 되었다. 학생회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셋은 모두 학생회 공식기구에는 간여하지 않고 전국 운동과 연계하여 서울대가 행동에 나서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미 경북대, 서강대, 연대 등에서는 유신 타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점검을 해보아도 이념 서클 활동을 통해 조직화된 소수를 제외하고는 학생 대중의 호응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화염병, 피켓, 유인물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어렵게 방학 동안 재건한 운동조직만 다치고 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이해찬은 이렇게 어려우니 어차피 할 바에는 강경투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학생회장과 의견을 나누어 보았더니 "해야 된다면 나서야지"라고 말은 시원하게 하는데 도대체 진실성이나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3월 마지막 주에 강구철, 전홍표와 만나 내린 결론은 "잠적한 선배들이 학내 상황에 대한 감각이 없어 무모한 행동을 시도한다. 빨리 선배들에게 실정을 전달해 희생을 막고 학내 분위기가 성숙되도록 학생대중의 현실의식 고취에 힘쓰자"는 것이었다.

학내 유인물 준비를 맡았던 권오걸이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고 물어 왔을 때에도 강구철과 나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렸다. 우리들은 문리대 일선 조직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국적인 유신타도 운동은 자동적으로 연기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홍표는 본업인 연극반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고, 나도 느긋한 마음으로 3월 마지막 주말을 보내며 오랜만에 신월동 야학에도 가보고, 상대 학생회관에 가서 한국사회연구회 세미나에 참가하는 여유도 부리고 있었다.

사전 검거와 내부의 제보자

3월 마지막 토요일(30일) 오후 2, 3시 무렵이었다. 문리대 교문 건너편의 학림다방 근처에서 최병두(지리학과, 현 대구대 교수)를 만났더니 몹시 당황해 하면서 "고향에서 전화가 왔는데 형사들이 찾으러 왔다고 한다.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지금 내려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 보아야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조금 후에 전홍표를 만나니 "다 틀렸다. 이 죽일 놈들을 어떻게 하지?"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캐묻자 "학생회 간부들이 정보부에 제 발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도 당분간 피하자"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판을 벌여 놓았는데 무작정 도망부터 갈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일단 다음날 저녁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31일 일요일은 창현교회에 출석했다. 대학생부 회원들이 김효순 선배한테 같이 놀러 가자고 하기에 학내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빨리 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을 적은 메모를 써서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전홍표를 만나러 갔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그대로 집에 들어 갔다가 기다리고 있던 동대문서 형사들에게 연행되었다.

학생 사건 수사로 유명했던 최모라고 기억되는 정보2계장은 "많은 문리대 학생 중에 자네를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야. 최병두는 벌써 남산으로 갔어"라며 이미 상당한 부분을 알고 있으니 순순히 털어 놓으라는 투로 말하고 있었다. 조사를 받다 보니 학생운동 내부의 논의과정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일을 형사들이 들이대고 있었다. 자정이 넘어가는데 전홍표가 끌려 들어와 조서에 지장을 찍고 있었다.

화요일(4 · 2)에는 정보과 사무실에 학생회장 곽성문이 나타났다. 그는 남산의 정보부 6국에서 조사받다가 오는 길이라며 "다 알고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더라. 뭐라고 한마디 하면 금방 서류철을 가져 오는데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중얼대고 있었다.

그날 오후에 형사들이 망원경을 꺼내고 운동화로 갈아 신고 어디로 몰려 나갔다. 몇 시간 후에 돌아 오더니 카메라맨인 박충홍 형사가 "한강 백사장 뛰고 왔어"라며 의기양양해 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절두산 성당 근처에서 사회학과 73학번 문국주를 잡아 온 것이었다. 학생회 임원 중에서 강구철과 문국주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경찰에게 알려 준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갑자기 일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자 사전 검거를 면한 강구철, 이해찬, 송운학 등에게는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게 되었고, 화염병 제조를 시도하게 되었다. 김병곤도 화염병은 반대하고 있었다.

동양사학과 백영서와 같이 직접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전혀 엉뚱한 친구들을 서울구치소에서 만나게 되어 사연을 들어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린 박종현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호소하는 통에 거절하지 못하고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4월 3일 저녁에 긴급조치 4호가 발포되는 것을 동대문서 정보과 사무실에서 들으면서 '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말을 처음 알

았다. 현장에서 잡혀 온 이해찬은 그 살벌한 판에서도 "사형시키면 죽는 것인가"라며 여유를 보이고 있었다.

남산과 각본 수사

4월 4일에 나는 남산의 중앙정보부 6국으로 넘겨졌다. 긴급조치 4호가 게재된 신문을 주고는 협조할 것인가 여부를 5분 동안에 결정하라는 호통으로 남산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연행된 학생들은 한마디로 폭력 데모로 북괴에 동조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는 각본을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소도구에 불과했다.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것은 4월 6일쯤이었다고 기억된다.

4월 19일로 기억된다. 남산 지하실에서 심문하던 정보부원들이 파견나와 있는 경찰관만 남겨 놓고는 나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행동의 자유가 없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그는 군대 얘기부터 시작해 이런저런 잡담을 하며 시간을 때우다가 내가 하도 딱해 보였는지 "긴급조치 4호가 발포되었으면 아무 파출소에라도 들어가 자수할 것이지"라고 한심해 하면서 수사 초기의 비화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의 요점은 문리대 학생회장 곽성문과 학생회 간부들이 "정보부에서 자기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중앙정보부 5국장을 찾아갔다"는 내용이었다. 5국장은 학생회 간부의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누가 곽성문에게 정보부와 협조할 것을 권유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도 말하지 않았다. 얘기를 듣다보니 사전 검거가 시작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 날은 이미 조서 작성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이었으므로 구태여 약을 올려 새로운 사실을 끌어낼 필요도 없었다. 지원나온 경찰관들은

호송과 감시만 했으므로 유도심문을 할만한 입장도 아니었다.

어쨌든 서울대의 상대, 공대, 사대 학생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문리대 학생회장이 곧바로 풀려난 것은 누가 보아도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일 것이다. 30년 동안 문리대 동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견 언론인이 되어 있는 곽성문이 자기가 기억하는 심문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인다.

5월 1일로 기억된다. 그날은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상관한테 일하고 있다는 표시를 내려고 하는지 데려다가 그냥 앉혀 놓고 있었다. 별안간 수사관들이 주고 받는 얘기가 귀에 들어 왔다. 경찰에서 지원 근무자로 나와 있는 이병석 순경이 "이병조가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라고 자꾸 물어보며 불안해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조금 있더니 이순경이 다시 들어와 "문호철 검사님이 서류가 틀렸다고 돌려 보냈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사가 6국 건물에 와 있으면서 송치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팀장으로 그 안에서 '사이상'으로 통했던 최라는 7과 2조장이 "여기가 어디라고 검사가 큰소리야"라고 호통을 쳤지만, 이순경은 "무서워서 다시 못 가겠습니다"라며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과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나한테도 자기가 쓰던 비누, 칫솔, 수건을 넘겨줘 한 달만에 이를 닦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다. 이순경은 핑계만 있으면 사무실을 빠져나가 정보부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가끔 옆에서 듣기에도 아슬아슬할 지경으로 대들기도 했다.

옆에 있던 헌병장교 출신이라는 계장은 "월남에서 같이 있던 송종의 검사만 왔으면 문제없는데, 참" 어쩌고 하며 혀만 차고 있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경찰 최고의 감식전문가라는 나이 지긋한 박정수 경위가 "본래 문검사는 서류에 까다롭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며 서류를

다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수사관들이 둘러 앉아 서류를 보기 시작했는데 계장이 지적하는 내용이 들려 왔다. 그는 검사에게 보내는 서류에 "민청학련에 가담하여 사전 모의 과정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중앙정보부 조정관 XXX의 지시에 따라 공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석방조치 가함"이라고 써서 문제가 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과 개전의 정이 뚜렷하므로 석방조치 가함"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조금 있더니 이병조를 데리고 와 조서를 수정하면서 나는 구석에 가서 벽을 향해 앉아 있게 하였다. 이병조와는 순간적으로 눈만 마주쳤을 뿐이었고, 그 이후 30년이 지나가도록 그의 소식을 모른다. 서울구치소 1사하 6방으로 돌아 온 다음에 1사상에 있던 독문학과 71학번인 황인성에게 통방으로 남산에서 목격한 일을 전달했지만 "병조도 심지가 굳은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

7월 달에 검사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정보부가 작성한 서류를 확인하는 요식행위였고 이는 공판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심 재판을 받으러 가보니 국선 변호인이 있었다. 변론을 위한 사전 접견도 없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부딪쳐 "폭력혁명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말을 건넸지만 국선 변호인은 아무런 말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가 누구였는지 이름도 모르고 있다. 국선 변호인이 한 반대심문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한마디였다고 기억된다.

그래도 1심에서는 재판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약간 남아 있어 공소장이 같이 묶인 언어학과 대학원의 정찬용 선배가 나와 전홍표에게 "너희들이 잘 해야겠다. 종구 너는 법정 태도 좀 고쳐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것은 폭력혁명을 기도했다는 대목에서 "화염병 몇 개로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정신상태가 이상한 것이 아니냐"고 항변하

자 문호철 검사는 고함을 질러대고 대령 계급을 붙인 법무사가 "법정 태도가 좋지 않다"고 윽박지르던 해프닝을 두고 한 말이었다.

1심 진행과정 중에 곽성문은 검찰측 증인으로 등장해, 국사학과의 황인범 선배와 4·19 직후의 통일운동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북한의 통일전략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몰아부치는 송종의 검사의 주장을 모두 시인해 주었다.

20년 구형을 받고 돌아오니 '소지'가 하는 말이 "강도 살인은 당신만 쳐다보고 살게 되었소"라는 것이었다. 사동 담당 교도관도 "세면장에 가서 물이라도 뒤집어 쓰고 오라"며 특혜를 베풀었다. 15년 선고를 받고 잡범들과 합방이 되면서 조용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없어졌지만 사회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무조건 한글 전용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상습적인 절도범도 있었지만 택시기사, 공사장 인부, 다방 주방장, 새우젓 장사, 재단사와 같은 진짜 서민들이 민중의 이야기를 쓴 황석영의 「객지」를 어려워하고 국민학생이 읽는 만화책 정도를 재미있게 보고 있었다. 출소해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교도소만 들락거리는 누범자들을 보니 법무부가 교정시설이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2심에서는 홍성우 변호사가 사실 확인을 위한 피고인 심문을 요청하자 재판장 이세호 대장이 "필요없어"라는 한마디로 묵살했다. 2심 선고가 있는 날 출정 대기를 하며 차를 기다리는데 제정구 선배가 "너희들 나가려고 통빡이나 재고 있는 거냐. 김병곤이 같은 아이들은 꼬빡 살아도 좋다는 얘기냐. 상고를 포기하고 면회나 빨리 하자"고 의논을 시작했다. 이해찬은 "개정 선언하면 애국가를 부르자"고 귓속말로 알려왔다. 결국 2심 공판정은 엉망이 되었고,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끝났다. 2심 통지서를 받아보니 3년을 깎아주어 징역 12년이 되었다.

74년 10월 중순 경에 안양교도소로 이감을 갔다. 4월 이후 처음으로 쬐는 햇볕이 너무 좋아 창가에 줄곧 서 있었다. 운동장에도 처음 나가 보았다. 어찌나 체력이 약화되어 있었는지 운동장을 한 바퀴 뛰고는 숨도 가쁘고 어지러워 꼼짝 못하고 있는데, 누가 거들어 주었다. 전남대의 김상윤 선배와 이때 처음 인사를 나누었다. 곧 집단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는 영등포구치소로 옮겨 갔다가 75년 2월 15일 밤에 풀려 났다.

통방으로 만들어진 민청학련 세대

서울구치소에서 74년 4월 말에 1사하의 독방으로 전방된 직후 별안간 귀에 익은 목소리들이 들려 오기 시작했다. 상층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에는 송운학, 문국주, 김경남, 황인성, 김지하가 있었다. 하층에는 최권행, 서강대 김택춘, 서울대 사대의 양국명(홍명 ?)이 있었다. 조금 있더니 건너편 2사상에 한양대 이우회, 김병곤의 얼굴이 보였다.

내 옆에는 문인간첩단 사건으로 들어 온 국민대의 장병희 교수가 있었다. 너무 많이 잡아 넣다 보니 하나 걸러 긴급조치 위반자가 있는 판이었다. 처음에는 교도관들이 통방을 제지했지만 매일 말려도 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는 상태가 되었다. 몇 달 지나 구매가 허용되고 책이 들어오게 되자 옆의 잡범들에게 배운 솜씨로 양말을 풀어 줄을 만들고 위 아래층으로 책이나 먹을 것을 나르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송운학은 민중이란 무엇인가, 지식과 지성은 다른 것인가와 같은 원론적 화두를 꺼내 토론을 촉발시키고 있었다. 황인성은 동학과 같은 민중운동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 교양과는 인연이 멀었던 나도 최권행 덕분에 신동엽의 「금강」을 읽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김지하 시인이 시를 창작하여 한 구절씩 부르면 김경남 선배가 중계를 하여 들려 주던 일이 가장 머리 속에 깊이 남아있는 1사의 추억이다.

제목은 잊었지만 "나라 13년 갉아먹은 벌레 박왕이 金克木이라는 점괘 때문에 김씨와 관련되는 모든 것을 없앴지만 자기 머리 위의 금관을 벗지 않아 벼락에 맞아 죽었다"는 내용의 담시와 「똥바다」는 당시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김지하 시인은 민중학교를 만들자는 구상도 이야기 했다.

1사상에 있는 인혁당의 김종대씨가 "이번에 우리 몇 사람은 죽을 것 같다. 검사가 정보부에 와서 조사를 하니 부인을 전혀 할 수 없었다. 기가 막힌다"고 한탄했지만 나는 솔직하게 말해 무슨 일이 났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안양교도소로 이송되면서 1사하 끝에 있는 인혁당 사형수 하재완씨에게 인사를 했더니 "자네들은 포드 대통령이 오기 전에 나갈 테니까 걱정말게"라고 덕담을 하였다. 이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안양교도소에서는 독방만 있는 4사 위 아래를 모두 비워 긴급조치 관계자만 수용했기 때문에 감옥이 아니라 합숙 토론회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적합할 지경이 되어 버렸다. 일본인 구속자인 다찌가와씨와 하야카와씨도 같이 있었다. 다찌가와씨가 일본 학생운동의 노래를 알려 주고 김경남 선배는 한국의 운동권 노래를 알려 주는 한 · 일 문화교류도 통방으로 이루어졌다.

영등포구치소에서는 방은 떨어져 있었지만 밖에서 석방운동이 맹렬해진 덕분에 운동을 매일 할 수 있어 김수길(성대), 박주환(한신대), 임상우(서강대), 이원희(서울대 사대), 문병수(연대 의대) 등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안양 시절에 「중앙일보」의 유근일씨는 "전국의 학생운동권을 한자리에 모아 놓았으니 정부가 참 큰일 했다"고 징역의 순기능을 강조한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이 말은 맞다.

민청학련이라는 이름을 학생운동가들이 지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응집력과 신뢰관계는 군법회의장과 교도소에서 만들어졌다. '자생적 사회주의자 집단'이라는 '낙인'이 먼저 찍혔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청년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불모지를 개간하는 일꾼이 되었다. 즉, 재야 운동권이 재생산되는 순환과정이 형성되었다. 박정권이 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하였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세력의 성장이 촉진되었다는 역설도 성립된다고 보인다.